



코스피 3178.74 (+31.37)	코스닥 969.99 (+2.79)
금리 (미국 3년) 1.134 (-0.024)	환율 (원/달러) 1125.80 (+3.20) (6일)



[뉴스]
올해
역대최고 수준
50만 가구 공급
02

美, 코로나 백신 지재권 포기 전세계 공급 확대 길 열린다

바이든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WHO 등 국제기구 환영의 뜻
모더나 등 제약업계 즉각 반발
“공장부터 원료 공급도 제한적”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일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조항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데 동의의 입장을 밝혔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제조와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제약기업들의 거센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일(현지시간) “행정부는 지적권 보호를 강하게 믿고 있지만,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권 조항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기하지는 않은 국가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과 접종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인도와 인도와 남아

프리카공화국 등은 WTO 회원국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에 관한 규정을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것이 가난한 나라의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동의하는 국가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다.

국제 기구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아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결정에 대해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사만다 파워 국제개발처(USAID) 관리자는 “대담한 행동과 올바른 행동”이라고 평가

하며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더 빨리 세상에 내보내고 향후 발생과 새로운 변종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업계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지재권 면제 소식이 전해진 후 모더나는 6.2% 하락하며 최근 두달 새 가장 큰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화이자도 2.6% 추락했다. 바이오엔텍은 8.9% 급락했고, 노바백스 역시 11%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이들 기업은 이번 지재권 포기가 결국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재권이 면제되더라도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근거다.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도 제한적인데다 백신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테판 우블 미국 제약 연구 및 제조업체(PhRMA) 회장은 “오래 지속돼온 미국 정책의 변화는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원재료 공급 제한 등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공허한 약속이며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WTO는 6월8~9일 공식 회의에 앞서 이번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부유식 해상풍력기’ 모형 살펴보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해 전시된 부유식 해상풍력기 모형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페인 대사들과 함께 관람하고 있다. /뉴스1

M-커버스토리

고가 아파트 지역 규제하자 중저가 지역 배짱매물 속출

부동산 규제와 풍선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에도
강남 등 서울 집값 꾸준히 올라
중저가 지역 노원 상승폭 확대

노원구는 상계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초입기를 하며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말 정밀안전진단신청을 마친 상계주공1단지 전용면적 58㎡가 7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으며 안전진단모금을 마친 3단지도 같은 면적형이 지난해 10월 6억9000만원에 팔린 후 1억원 가까이 오른 7억8500만원에 매물이 있다.

정부가 스물다섯번의 부동산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의 연속이다. 정부는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2~3년이 걸리는 만큼 그때까지 집값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공조도 관심사다. 최근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노원과 구로 일대 아파트가 들쭉이고 있다.

보람아파트는 전용면적 79㎡가 8억7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올해 2월 8억4000만원에 팔린 뒤 호가 3000만원이 올랐다. 보람아파트 역시 최근 정밀안전진단 자금 모음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재건축 시작을 알렸다.

구로구의 경우 신도림디큐브시티는 전용면적 84㎡가 15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1월 12억원, 12월 13억6000만원에 팔리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달 30일 기준 지역별 주간 상승폭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0.28%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구로(0.20%) ▲금천(0.18%) ▲도봉(0.15%) ▲강남(0.14%) ▲성북(0.14%) ▲강북(0.12%) ▲양천(0.12%) ▲영등포(0.12%) 등 순으로 집값이 상승했다.

지난 2014년에 지어진 개봉푸르지오도 전용면적 84㎡가 10억원을 넘어섰다. 이 면적형은 지난 2월 9억3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밖에 전용 59㎡가 지난해 6월 보다 2억원 오른 8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3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964@

재계 지주전환 작업에 페어트레이딩 주목

(고평가 종목 매도하고 저평가 종목 매수)

SK·현대차 등 지배구조 개편 속도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확대 나서

주요 그룹사의 지주전환에 속도가 붙으며 지주사-계열사 간 페어트레이딩(Pair Trading) 투자 기법이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을 통한 중간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한 SK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 등도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주로 페어트레이딩 방식으로 사용되던 보통주-우선주뿐 아니라 지주사-계열사 방식도 유효한 전략으로 주목됐다. 페어트레이딩은 고평가 종목을 팔고,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 현

대차, 한화 등 주요 그룹사가 발빠르게 지주사 전환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배회사에 대한 지분요건이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규 지주사 전환에 나서는 그룹은 내년부터 바뀌는 개정안에 따라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려야 한다. 올해 개편을 마무리해야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다.

이를 투자 전략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페어트레이딩이 거론된다. 지배구조 이슈로 지주사와 주가가 오른 계열사의 벌어진 스프레드(비교 대상 간 가격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페어트레이딩은 유사한 흐름을 지닌 두 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활용해 저평가 종목을 롱(매수), 고평가 종목은 쇼

트(매도)하는 투자기법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코카콜라나 펩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 보통주와 보통주 간 동일 업종 종목에 적용된다. 주로 헤지펀드 투자에서 롱쇼트 에퀴티(long short equity) 전략의 핵심 매매 기법으로 통한다.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상황에선 방향성에 상관없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중립형 매매전략이 현재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활용한 페어트레이딩 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각 그룹사의 지주사 전환이 완료되면 지주사와 계열사 간 페어트레이딩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6일 코로나19 확진자 총 574명... 서울 211명으로 가장 많아
▲ 검찰, ‘허위 보도자료 의혹’ 공수처 대변인 소환조사 /사진 뉴스1

▲ 한국 부도위험 2008년 이후 가장 낮아... CDS 프리미엄 ‘19bp’
▲ 민변 “문재인 정부, 개혁 불균형... 검찰에만 국정 집중”



▲ 이낙연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중부세 청년 주거안정예” /사진 뉴스1
▲ 검찰,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7일 소환... 그룹 수사 속도